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서지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9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7. 30.

발 의 자 : 서지영 · 정연욱 · 김승수
이헌승 · 박성훈 · 박덕흠
인요한 · 서천호 · 권성동
김소희 · 김기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, 사전에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 예외로 관할경찰관서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야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‘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’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이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시위에 참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있었음(2010헌가2, 2011헌가29 등).

한편, 선거기간 중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9시부

터 오전 7시까지 녹음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.

이에 야간의 옥회집회 또는 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고,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것임(안 제10조).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본문 중 “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”을 “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”를 “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) 누구든지 <u>해가 뜨기 전 이나 해가 진 후에는</u>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. 다만, 집회의 성격상 부득 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 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<u>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</u> 옥외집 회를 허용할 수 있다.	제10조(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) ----- <u>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</u>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오후 9시 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도</u> -----.